



2011년 국내외 경제전망

본고는 최근 (2010.10월~12월)에 발표된 주요 경제 연구기관의 2011년 국내외 경제 전망을 종합 요약한 것이다.

[자료]

대신경제연구소 : 2011년 국내외 경제 전망 (2010.11.13)

하나금융경영연구소 : 2011년 경제금융전망 (2010.11.17)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11년 세계경제 전망 (2010.12.6)

산업연구원 : 2011년 거시경제 전망 (2010.12.9)

LG경제연구소 : 2011년 국내외 경제 전망 (2010.10.1)

한국은행 : 2011년 경제전망 (2010.12.10)

한국금융연구원 : 2011년 한국경제 전망 (2010.11.20)

한국개발연구원 : 2011년 국내 경제전망 (2010.12.1)

신한FBS연구소 : 2011년 국내 거시경제 전망 (2010.12.6)

1. 세계 경제

세계 경제는 2009년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각국 정부의 경기부양정책의 영향과 수출확대로 2010년 초까지 빠르게 회복되었지만 경기부양효과의 소멸 및 선진국의 내수회복 부진 등으로 2/4분기 이후 선진국을

중심으로 회복세가 크게 둔화되었다. 2011년에도 각국 정부의 재정건전성 강화 노력, 세계교역량 증가율 둔화, 기저효과와 소멸 등으로 세계 경제 성장률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더블딥이나 재정위기 등의 위험요소가 단기에 현실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으나 경제의 불확실성이 경제주체들의 심리를 제약하면서 선진국 경기는 부진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전망이다. 그러나 성장의 축이 정부에서 민간으로 이동하고 신흥국의 상대적으로 건전한 재정을 바탕으로 한 내수중심의 안정 성장으로 경기회복기조는 유지되어 3% 초중반에서 4% 초반의 경제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 〉

(단위 : %)

전망기관 (전망시점)	연도	세계	선진국	미국	유로	일본	신흥국	중국	인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0.12)	2010	-	2.5	2.7	1.7	3.5	7.0	10.1	8.6
	2011	3.5	2.2	2.2	1.6	1.0	6.4	9.0	8.5
한국은행 (2010.12)	2010	4.6	-	2.8	1.7	3.5	-	10.3	-
	2011	4.0	-	2.4	1.5	1.0	-	9.2	-
LG경제연구소 (2010.10)	2010	4.5	2.6	2.6	1.4	2.8	6.4	9.8	8.5
	2011	3.3	1.5	1.7	0.9	1.0	5.4	8.5	8.1
OECD (2010.11)	2010	4.6	-	2.7	1.7	3.7	-	10.5	9.1
	2011	4.2	2.3	2.2	1.7	1.7	-	9.7	8.5
Global Insight (2010.11)	2010	-	-	2.7	1.6	1.6	-	10.3	8.5
	2011	4.0	-	2.3	1.4	1.5	-	8.6	9.0
IMF (2010.10)	2010	4.8	2.7	2.6	1.7	2.8	7.1	10.5	9.7
	2011	4.2	2.2	2.3	1.5	1.5	6.4	9.6	8.4

국가별로 살펴보면 미국경제는 2010년 1/4분기까지 경기부양정책의 효과로 빠른 경기회복세를 보였으나 이후 주택구입 세제지원 종료로 주택시장이 급락세를 보였고, 고용회복이 지체되는 등 점진적인 경기둔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1년에도 주요국의 성장모멘텀 후퇴와 금융완화정책에서 파생되는 통화갈등 등 부정적인 영향이 상반기까지는 경제회복을 제약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경기가 회복국면에 들어갈 경우 고용지표 개선도 기대 가능하며, 수출부문 및 제조업 호조, 재고확장 등 경기회복에 긍정적 요인이 있어 경기침체보다는 저성장이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되어 2011년 경제성장률은 2% 초반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경제는 2010년 재정위기도 불구하고 정책효과와 유로화 하락에 따른 수출 증가 등에 힘입어 예상보다 빠른 성장세를 보였다. 그러나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유럽은행들의 과도한 정부 의존 및 조달 위험이 상

존하고, 재정감축 여파로 수요침체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세계교역 증가세가 둔화되고 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 가능성 등으로 2011년에는 1% 대의 저성장세에 머물며 점진적이고 불규칙한 성장세를 보일 전망이다.

일본경제는 2010년 정책효과 축소 및 기저효과 소멸에 따른 내수둔화, 대외환경의 악화에 따른 수출부진으로 하반기에는 내·외수 성장동력이 동시에 약화되는 가운데 상고하저의 회복세를 보였다. 2011년에도 소비자물가지수가 20개월 연속 하락하는 등 디플레이션이 지속되고 재정건전성 악화로 추가적인 경기부양책 시행이 어려우며 고령화에 따른 내수부진 등이 예상되어 1% 대의 저성장세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전망이다.

한편 중국경제는 2010년 정부의 경기부양효과의 감소, 통화정책의 점진적인 긴축 선회 등에 따른 1/4분기 11.9%의 고성장을 기록한 후 점진적인 둔화세를 보였으나 능동적인 정책 대응으로 위기 이후 연속착륙에 성공하였다. 2011년에는 정부의 경기부양정책의 집행 완료와 점진적 긴축정책 선회에 따른 고정투자 증가세 둔화, 세계경기 하강에 따른 수출부진 등의 영향으로 인해 경기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소비와 투자 등 내수 성장이 전체 성장을 견인하며 8% 중반에서 9% 중반의 상대적으로 양호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 밖의 신흥경제국들은 2011년에 정책효과가 소진되고, 수출 둔화와 함께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 증가에 따른 자산버블 및 인플레이 압력 억제를 위한 통화긴축의 여파로 성장세는 둔화될 전망이다, 내수 성장세가 지속되며 상대적으로 빠른 성장세를 지속할 전망이다.

2. 국내 경제

금년 한국경제는 중국의 긴축강화, 미국의 소비부진, 유로존의 재정불안 등에 따른 대외부문의 수요둔화 추세로 수출 및 그에 연계한 투자회복세가 점진적으로 저하되고 있다. 또한 정부의 재정지출이 상반기에 집중되어 있어, 하반기에 정부의 경기부양력이 크게 약화된 점도 성장세 둔화의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성장모멘텀 약화추세는 2011년 중에도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유럽 재정위기의 재연 가능성, 무역 분쟁의 확산 가능성, 글로벌 경기회복 둔화 등 대외여건 악화로 최대 성장동력인 수출이 금년에 비해 크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대내적으로는 재정건전성 강화, 높은 가계부채 비율과 금리인상 등 거시경제정책의 정상화, 전년도 고성장에 따른 기술적인 반락 효과 등이 예상되어 2011년 국내 경제성장률은 3% 후반에서 4% 초중반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 국내 경제 전망 〉

(단위 : %)

전망기간 (진단시점)	연도	GDP 성장률	민간 소비	설비 투자	건설 투자	소비자 충격	실업률
한국개발연구원 (2010.12)	2010	6.2	4.4	25.6	▼1.4	2.9	3.8
	2011	4.2	4.1	8.5	3.4	3.2	3.6
한국은행 (2010.12)	2010	6.1	4.2	24.3	▼1.5	2.9	3.8
	2011	4.5	4.1	6.5	1.4	3.5	3.5
신한FBS연구소 (2010.12)	2010	6.0	4.0	21.6	0.0	2.9	3.8
	2011	3.9	3.3	5.0	1.5	3.3	3.4
하나금융경영연구소 (2010.11)	2010	6.0	4.1	22.0	▼0.7	2.9	3.9
	2011	4.1	3.5	3.9	0.9	3.2	3.8
대신경제연구소 (2010.11)	2010	6.1	4.1	25.2	▼1.2	2.9	3.8
	2011	4.3	3.7	8.7	1.4	3.3	3.4
LG경제연구소 (2010.10)	2010	6.2	4.3	21.6	0.1	2.8	3.6
	2011	4.0	3.7	4.5	▼0.6	3.2	3.7

민간소비는 2010년에 정부의 자동차구입에 대한 세제혜택으로 내구재 소비 증가, 실질임금 증가, 교역조건 개선에 따른 가계의 실질구매력 증대 등으로 전년 대비 4% 초중반의 증가를 보일 전망이다. 2011년에도 고용 및 임금개선 등으로 가계의 구매력이 개선되며 환율 하락 등으로 소비수요의 회복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정부의 재정건전성 강화 등 정부지원 효과 소멸, 자산가치 하락, 기준금리 정상화에 따른 시중금리 인상, 교역조건 악화 가능성 등이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어 4% 내외의 증가가 예상된다.

고정투자 부문에서, 설비투자는 2010년 제조업 평균가동률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상당기간 생산능력을 상회하는 생산 증가율은 설비투자조정압력을 높이면서 기업들의 실제 설비투자 확대로 이어져 20% 초중반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낼 전망이다. 그러나 2011년에는 선행지표의 증가세가 이어지고는 있으나 증가속도가 점차 둔화되고 있고, 설비투자 조정압력 축소, 국내외 경기의 불확실성 등의 영향으로 4% ~ 8% 대의 성장을 보여 2010년보다 크게 둔화될 전망이다. 건설투자는 지난 2년 간 신규분양물량 감소로 주거용 투자의 감소폭이 확대되었고, 경기부양을 위한 정부투자가 연초에 일단락되며 토목투자의 증가 폭도 둔화되어 2010년에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2011년에도 부동산거래량 위축과 가격하락, 미분양주택수 적체, 건설사 구조조정에 따른 불안과 혼란, 시중금리 상승, 재정건전성 강화 차원으로 사회간접자본(SOC)관련 예산액을 축소하는 등의 영향으로 1% 전후로 증가할 전망이나 증가율이 미미한 수준에 그쳐 건설경기 부진에서 벗어나지는 못할 전망이다.

대외거래에 있어서, 수출은 2010년 세계경기 회복과 수출단가 상승, IT제품의 수출호조, 기저효과 등이 복

합적으로 작용하였고 선진국에 비해 경제 회복이 빠른 對신흥국 수출비중이 높는데 기인하여 10월까지 전년 동기대비 30.4%로 큰 폭의 신장세를 보였다. 2011년에는 세계경기가 둔화되고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으로 원화 절상 추세가 지속되면서 가격경쟁력이 약화되며, 선진국 기업들의 투자확대 등 수출시장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어 10% 내외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수입은 2009년 수입 급감에 따른 기저효과와 원유 등 국제원자재가격 상승, 수출용 설비도입 증가, 소비 회복 등으로 2010년 10월까지 전년 동기대비 33.1% 급증하였다. 2011년에는 국내경제성장률 둔화, 설비투자 증가율의 하락 및 점진적인 금리인상 등으로 수입 증가폭은 둔화될 전망이나 유가상승의 영향으로 수출 증가율보다 약간 높은 14% 내외의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이다.

소비자물가는 2010년 글로벌 원자재가 상승, 공공요금(전기, 가스) 인상 등 공급측 요인에 의한 상승 압력이 부각되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인해 총수요측 압력이 낮은 수준에 머물면서 2.9%로 안정되었다. 2011년에는 국제원자재가격이 상승하여 수입물가와 생산자물가를 상승시키고 결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고용개선에 따른 명목임금 상승과 경제주체들의 기대인플레이션율이 상승하고 있는 점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높아질 것을 예고하고 있다. 그러나 원/달러 환율하락과 시중금리 상승, 정부의 물가관리정책 등이 물가상승 압력을 완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3% 초반의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시장은 그동안 구조적 감소추세를 보였던 제조업 부문의 취업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고용회복을 주도하고 있으나 향후 수출 활력이 낮아지면서 제조업 부문의 고용증가 추세는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경기회복세가 지속되면서 전반적인 실업률이 하락하고 취업자수가 증가하는 등 고용개선세가 지속되고 임시직과 일용직 근로자 비중이 줄어드는 대신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고용의 안정성이 확보되는 상용직 근로자 비중이 늘면서 질적인 측면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어 2011년 실업률은 3.4% ~ 3.8%로 2010년 대비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3. 환율(원/달러) 및 국제유가

원/달러 환율은 2010년 초 빠르게 하락하여 금융위기 이후 저평가 상태에서 탈피를 시도했으나 유로존의 재정위기, 선물환 규제 여파, 지정학적 리스크 등이 맞물려 1,200원대 후반까지 반등했다. 그러나 하반기 이후 환율 불안요소의 영향력이 소진되고 미국의 양적 완화로 인한 달러 약세에 힘입어 하락 추이를 보이고 있다. 2011년에도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이하 '미 연준')의 추가적인 통화완화 정책이 예상되고 수출 확대를 위한 미국 정부의 약달러 정책의 지속,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흑자 지속 등으로 하락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서울 G20 정상회담 이후 제한적인 자본유입 규제의 허용으로 정부의 자본유출입 규제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환율의 급락 가능성은 낮아 1,100원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 환율 전망 〉

(단위 : 원/달러)

전망기관 (전망시점)	2010년	2011년
산업연구원 (2010.12)	1,150	1,080
신한FBS연구소 (2010.12)	1,158	1,130
하나금융경영연구소 (2010.11)	1,120	1,065
대신경제연구소 (2010.11)	1,151	1,063
LG경제연구소 (2010.10)	1,160	1,100

국제유가는 미국의 경기부양책 종료에 따른 여파로 경기 둔화 우려가 심화됨에 따라 2010년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배럴당 70달러 중심의 박스권 흐름을 지속했으나 미 연준의 2차 양적완화 정책에 힘입어 박스권 흐름에서 벗어나 상승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세계 최대 원유생산국인 사우디가 최근 적정 유가 범위를 70~90달러로 상향조정하여 생산량 통제를 통한 가격 상승을 유도할 수 있음을 시사하여 유가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석유 재고 수준이 과거 평균을 큰 폭으로 상회하고 있고 세계경제 성장세의 둔화 등이 유가의 추가 상승세를 제한할 것으로 예상되어 2011년 국제유가는 연평균 배럴당 85달러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K**

〈 국제유가 전망 〉

(단위 : 달러/배럴)

전망기관(전망시점)	기준유종	2010	2010				연평균
			Q1	Q2	Q3	Q4	
CERA (11.18)	Dubai	77.3	77.7	78.0	80.7	83.0	79.9
	Brent	78.5	79.2	79.7	82.4	84.3	81.4
	WTI	79.1	80.5	81.2	84.0	85.7	82.9
EIA (11.9)	WTI	78.0	83.0	84.7	86.0	87.0	85.2
PIRA (10.28)	Brent	79.2	84.4	88.0	90.5	93.0	89.0
	WTI	79.1	84.0	86.7	90.7	93.0	88.6
CGES (10.25)	Brent	78.3	79.0	79.4	84.0	-	80.8

주 : CGES(런던 소재 세계에너지센터), CERA(미 캠브리지 에너지연구소), EIA(미 에너지정보청), PIRA(석유산업연구소)